

“주인공같은 엄마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연기했죠”

JTBC 새 월화극 ‘18 어게인’ 정다정 역 맡은 김하늘
“마음 울리는 내용 매력...꿈 향해 노력하는 워킹맘 존경”



로맨틱 모디디 ‘18어게인’

“아이를 키우면서 꿈을 포기하며 살다가 남편과 이혼하기 직전 꿈을 향해 노력하는 워킹맘인 주인공이 존경스러웠어요.”

지난해 JTBC ‘바람이 분다’에서 감우성과 절절한 멜로를 선보였던 김하늘(42)이 이번엔 같은 채널에서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왔다.

김하늘은 21일 첫 선을 보인 JTBC 새 월화극 ‘18 어게인’에서 이혼 직전에 잘생긴 ‘18세 농구 천재’로 돌아간 남편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워킹맘’ 정다정을 연기한다. 남편 흥대영 역은 윤상현이 맡았다.

김하늘은 이날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대본이 정말 와 닿았고 재밌었다”며 “로맨틱 코미디 특유의 가벼운 연기뿐 아니라 감동적인 부분이나 마음을 울리는 내용도 많아 매력 있게 다가왔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극 중 다정과 마찬가지로 워킹맘인 그는 “나는 아이가 어려 조금 다르지만 느낌이 아주 비슷하고 공감 이 깊다”며 “어쩌면 (정다정) ‘내 미래의 모습 이겠구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 중 다정의 모습이 멋있게 느껴져서 나중에 나도 저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속칭 ‘리즈’ 시절로 돌아간 남편 대영을 연기할 윤상현(47)은 ‘18 어게인’에서 첫 2인 1역에 도전한다. 윤상현이 맡은 37살 흥대영의 18년 전 모습을 배우 이도현(25)이 맡았다.

윤상현은 “이번 드라마가 마냥 재밌는 내용이 아

나라 감정이 많이 섬세하다 보니 시청자분들도 거부감 없이 2인 1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도현과) 연습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할 때 톤 변화가 많은 편인데 (이도현이) 그것까지 다 녹음해서 집에 가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계속 믿음이 갔다”고 했다.



JTBC 월화극 ‘18 어게인’이 주연을 맡은 이도현·김하늘·윤상현(왼쪽부터)

‘18 어게인’은 하병훈 PD가 JTBC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다. 3년 전 비슷한 콘셉트의 KBS 2 TV 드라마 ‘고백부부’를 연출해 호평받은 그는 “살면서 이렇게 부담을 느껴본 적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도 “오랜 시간 작업하면서 불안감이 확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지금은 부담감보다 설렘이 더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8 어게인’은 고등학생 쌍둥이 아이를 둔 부부의 이야기라 ‘고백부부’보다 좀 더 확장된 가족 드라마”라며 “10대부터 50대까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2009년 영화 ‘17 어게인’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원작보다 꿈을 좇는 워킹맘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연합뉴스

유아인·유재명 범죄 영화로 만나다

홍의정 감독 ‘소리도 없이’ 첫 호흡



배우 유재명과 유아인이 범죄 영화로 처음 만났다.

영화 ‘소리도 없이’에서 두 사람은 범죄 조직의 일원도, 형사도 아닌, 범죄 현장의 뒤처리하는 청소부다.

계란장수라는 본업이 있지만,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근면하고 성실하게 시체 수습을 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남자 장복(유재명)과 장복을 돕고 있는 말이 없는 태인(유아인).

단골인 범죄 조직 실장 용석의 부탁을 받고 유괴된 회화를 역지로 떠맡았는데, 다음 날 용석은 시체로 나타나고 두 사람은 계획에 없던 유괴범이 되어 사건에 휘말린다. 두 배우는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으로 영화를 선택했다고 입을 모았다.

유아인은 21일 열린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놀랍고 충격적이었다”며 “아주 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은, 일상적일 수 있고 익숙할 법한 이야기를 조합해 마음을 자극하는 데 이끌렸다”고 말했다.

유재명도 “읽는 순간 묘한 경험을 했다. 풍부하고 강렬하다”며 “이런 작품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게 행복했고, 작업하면서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유아인은 극 중 대사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는 “말 수 없는 소리가 빠져나오는 거로 봐서 소리를 못 내는 건 아니고, 세상에 표현하거나 세상과 소통할 거부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가 아닌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 삭발을 하고 살을 찌우고, ‘영역을 침범당한 고릴라’ 같은 감독의 관념적인 디렉션을 소화해야 했다.

평소 말이 많지 않은 편이라는 유재명은 “설 새 없이 말을 한다”. 장복은 범죄 현장에서 일하지만 딱히 죄를 짓는다는 생각은 없이,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인물이다. 유재명은 장복에 대해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안분지족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라며 “극약무도한 인물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나쁜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독특한 설정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영화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SF 단편 ‘서식지’를 선보였던 홍의정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영화는 다음 달 개봉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유미 “원작 감동 시청자에 그대로 전하고 싶어”

정세랑 소설 원작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주인공 맡아

영화 ‘82년생 김지영’으로 한국 여성의 서사를 그려냈던 배우 정유미(37)가 이번엔 초능력을 가진 보건교사로 돌아왔다.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에서 타이틀 롤을 맡은 정유미는 24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이번 작품을 연기하면서 남들과는 달라 외로울 텐데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꽃피어 나가는 은영이를 보면서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처럼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품에서 느껴지는 엉뚱함과 재기발랄함도 좋았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이 많이 느껴졌다”며 “원작 소설에서 느낀 감동을 시청자분들께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정세랑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보건교사 안은영’은 남들이 볼 수 없는 존재를 볼 수 있는 안은영이 조력자인 한문 교사 홍인표와 함께 학교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가는 작품이다.

안은영은 누군가의 욕망이 남긴 흔적인 ‘젤리’를 볼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진 무지개 칼과 비비탄 총으로 오염된 젤리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지녔

다. 은영은 남들과 다른 에너지를 가진 인표와 함께 병원이 풀린 학교 지하실에서 나온 수많은 젤리를 무찌러나간다.

인표 역을 맡은 남주혁(26)은 “소재 자체가 너무 신선해 재밌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서 희열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작품의 성패는 현실에 실존하지 않는 육상의 흔적, 즉 젤리라는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연출을 맡은 이경미 감독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낯설지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실존하는 희귀한 생물체의 아름다움과 움직임 가져왔다”며 “동물 소리를 변조해서 새로운 경험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져 전 세계 시청자에게 공개되는 이번 작품은 침술원이나 봉숭아 물들이 등 한국적인 소재뿐 아니라 판소리 등 국악을 변형한 음악을 사용해 ‘한국스러움’이 외국 시청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정유미가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영화 ‘미쓰 홍당무’·‘비밀은 없다’를 연출한 이 감독은 “제가 직접 쓴 이야기로 작품을 만들어왔는데,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면서 작품을 분석하고 어떻게 구현할지 상상하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며 “어려웠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한 번 해보

고 싶은 즐거운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 안은영’은 제작은 키이스트에서 맡았으며, 정유미와 남주혁 외에 문소리도 함께 출연한다. 총 6부작으로 넷플릭스에서 25일 오후 4시 공개.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명품웃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	하나부동산사무소 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 본위 ☎ 062)233-5155, 010-3615-5155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태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웅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본위 ☎ 062)523-1003, 010-5355-0867	매산철거·삼보소개소 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텐, 특수기공, 조직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잠·인부일선 ☎ 062)528-7005~6, 010-3625-278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태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곡·홍삼·생약초즙·봉어즙·경어즙 달발즙·침·포도즙 각종 고춧가루 ☎ 062)224-9559, 010-3617-9779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대연건설 동구 계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머리해요(미용실) 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1차앞 개업할인 이벤트 컷트8,000원 염색20,000원 펌25,000원 크리닉50,000원 셋팅50,000원 매직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전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일번지식당 나주시 영산포로284(구 영산포역도로변) 흑염소탕, 독배기오리탕,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육개장, 불고기, 불고기비빔밥,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 ☎ 061)335-1110, 010-8543-9617	the 사라헤어 북구 북문대로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펌,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닉 ☎ 062)522-2380, 010-8200-9182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